

#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윤리에 대한 소고

기독교사회복지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열개 구상을 위한 기본 연구

강 상 우(겸임교수)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윤리에 대한 소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사회복지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과 더불어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열개 구상을 위한 기본 연구다.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에서 만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반 사회복지학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으로는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서 만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사회복지실천으로 사회복지(실천) 윤리나 철학에서 바로 그 정체성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질적 가치로서 “하라와 하지마라.”(Dos and Don'ts)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Do and Don't를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해야만 하는데 비해 사회복지학은 기독교에서 본질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것도 상대적 가치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예로 들어 기독교사회복지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는 절대적 가치로 Don't에 해당하지만 사회복지에서는 사례에 따라 상대적 가치의 문제로 취급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일반 사회복지학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절대적 가치를 다루는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에 있어서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자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인 Dos와 Don'ts에 관계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는 기독교윤리에 따른 해결(반드시 Dos는 Dos로, Don'ts는 Don'ts로)을, 그리고 비본질적인 가치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복지학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준용(準用)할 것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Dos and Don'ts”. 동성애.

## I 들어가는 말

당황스럽지만 이럴 경우에. 다음은 최근 인터넷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해외 웹사이트에선 [백인]자신의 처녀성을 고가에 팔겠다는 여성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처녀성 경매 주인공은 더욱 특이하다. 현재 의대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여성은 낙찰금의 일부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27살이며 아직 성관계 경험이 없다고 밝힌 엘리자베스 레인은 자신을 미국의 한 의과대학 소속 대학생이라고 밝혔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속옷 차림의 사진 등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려놓고 처녀성 경매를 홍보 중이다. 다만 얼굴 부위는 자신의 이름으로 가려 놓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오는 4월 1일 경매를 시작해 자신의 처녀성을 판매할 예정이며 경매 낙찰자는 엘리자베스와 12시간 데이트, 그리고 뜨거운 하룻밤을 경험하게 된다. 다만 최저 낙찰가가 무려 40만 달러, 한화로 약 4억3000만 원이나 돼 실제로 낙찰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기부 의사다. 엘리자베스는 “낙찰 금액이 결정되면 이 가운데 35%는 개발도상국의 교육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 낙찰금액인 40만 달러에 낙찰이 이뤄질 경우 14만 달러를 기부하게 된다.

자료: 신민섭, “처녀성 경매 나선 미모의 의대생, ‘낙찰액 35%는 기부할 예정’” <일요신문> (2014/03/25);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74322](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74322).

위의 신문 기사를 읽고 무슨 생각이 났는가? 오늘날의 배금주의가 생각났는가? 돈 때문에 저런 행동한다고 생각되어졌는가? 아니면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생각났는가.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로 우리나라에서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J. 샌델(Michael J. Sandel)의 또 다른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What money can't buy : the moral limits of markets)이라는 책 제목이 생각났는가. 진짜 돈으로 다 사는 세상이 되었구나. 모든 것이 매매 가능한 사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性)이란 무엇일까? 매매(賣買) 가능한 그 무엇일까? 매매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 매매를 허락해야만 하는 것일까? 수입금을 모두 자기 목구멍으로 처넣겠다는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금의 35%를 기부한다는데 ... 얼마나 기특하고 좋은 일인가? 그것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한다는데. 신문기사도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개발도상국의 교육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한다고. 약자인 여성들을 위해서 ... 그 용기를 높이 치하해 주지는 못할 만정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그것도 백인 여성이, 그것도 공부도 매우 잘하는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이. 그것도 더욱이 성적으로 문란한데 처녀(virgin)된 몸으로 한다는데? ...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도 있는데 말이다. ‘매춘(賣春)이 아니라 성노동(性勞動[者])’이라는 말이 엄연히 일부 학자들 간에 사용되고 있듯이 매춘도 엄밀한 노동의 대가인데. 그것도 매우 신선(新鮮)한 성(性)을 파는. 또 섹스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AIDS와 성병의 방지 때문에 콘돔을 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기(性器) 상호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섹스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라텍스를 사이에 두고 만날 수 없는 그 러나 아주 가까운 만남을 통한 마찰에 불과할 뿐이지. 이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대답은 시간이 있으면 생각해보기로 하고.

이제 사회복지 관련 분야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섹스 자원봉사”의 문제로 가보자.<sup>1)</sup> “섹스(Sex)”와 “자원봉사(Volunteer)”라는 단어의 조합이 가능하거나 하는 걸까? 성생활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섹스

자원봉사가 가능할까? 장애인들의 욕구 만족을 위해 특히 행동(舉動)에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자위행위(自慰行爲; masturbation)를 해주거나, 아니면 직접 잠자리를 해주(intercourse)는 자원봉사는 가능한가?(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무성[無性]이 아닌 엄밀하게 성적인격체[性的人格體]다. 성에 대해서도 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질문들은 가능하다.) 미성년자(未成年者)도 이러한 자원봉사에 지원 가능할까? 남·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유부녀는 어떤가? 남편의 동의하에 이러한 자발적인 활동이 가능할까?(자원봉사자들의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해 볼 때에 가능한 질문이다). 또 장애인의 성적 지향(性的志向; sexual orientation)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최대한 맞춤형으로 클라이언트에 맞게 완벽하게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성적 소수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인에게 이러한 성적 지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도 가능할 것이다). 또 국가나 지방정부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이러한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어떤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들 섹스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나 식비 등을(건물비[숙박·대여], 성용품 구입비 등) 국가예산으로 보조해주는 것은 어떤가(일반자원봉사에서 항상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보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가능한 질문이다). 또 만약 정치인들이나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건 관계없이 장애인 섹스 자원봉사에 대해서 정책적 어젠다(agenda)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포퓰리즘[populism]에 정치인들과 정책결정자들이 민감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질문도 가능하다).

장애인 섹스 자원봉사의 문제에 대해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애인의 섹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까?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는 말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일체의 부정적인 질문에 함구(緘口)해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지도자가 혹시 이러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목회자가 하는 것이니 잘 생각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것인가? 교회의 예산을 섹스 자원봉사의 후원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 사회복지사로 당신의 다니고 있는 복지단체에서 ‘섹스 자원봉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직장에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옹호자(advocator) 직장의 정책에 따라 섹스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와 선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인가? 본 연구자는 장애인이나 다른 그 누구를 폄하(貶下)할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실 “장애인과 섹스 자원봉사”의 문제는 책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과거 적은 목소리로 일부 계층과 사람들에게서 담론화되었던 문제의 하나였다. 물론 교회와 기독교계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질문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섹스 자원봉사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를 제기해 본 것이다.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s)가 발생할 때.** 본 연구자가 본고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일반 사회복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기존의 일반사회복지에서 다루고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들(Ethical Decision-Making Models)로 해

---

1) 왜 섹스 자원봉사에 대해 언급하는가하면 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작은 목소리이지만 이미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섹스 볼란티어>(Sex Volunteer: Open Secret 1st story, 2009. 15세이상관람가. 123분)와 책 <섹스 자원봉사>(억눌린 장애인의 성: 가와이 가오리 지음. 육민혜 옮김 아름. 2005).

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 연구자는 윤리적 딜레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기존의 사회복지학에서 다루는 의사결정 모델로도 해결 가능한 것도 있지만(아마 대부분의 윤리적 딜레마일 것이다), 해결할 수 없는 것(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적지만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와 연결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일 것이다.)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이유로 기존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로 해결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적 열개를 구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동성애 관련 제(諸)문제 중심.** 본 연구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동성애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면 많은 이들에 의해 다양한 이의들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짐 월리스(Jim Wallis)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문제로 ‘낙태와 동성애’에 같은 협소한 문제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sup>2)</sup> 빈곤, 환경, 전쟁, 인권과 같이 더욱 확장된 정치 문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Wallis, 2008: 26-27).<sup>3)</sup> 물론 본 연구자도 월리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법부도 동성애에 옹호 분위기로 돌아섰고, 보수진영에서도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는 신문 기사<sup>4)</sup>가 나온 것을 볼 때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정신(Zeitgeist)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또한 인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hot potato)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버드 D. 풋넘과 데이비드 E. 캠펬(Robert D. Putnam and David E. Campbell)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종교적 유권자이든 비종교적 유권자이든 간에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도출된 이슈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sup>5)</sup>

종교성과 정치적 당파성을 함께 묶어주는 접착제는 정치적으로 도출된 두 가지 이슈, 특히 낙태와 동성결혼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이 두 이슈에 대한 태도는 종교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하지만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새로운 부분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낙태와 동성애 권한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이슈가 정치적으로 두드러진 이슈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두 정당이어도 문제를 놓고 갈라졌듯이 종교적인 유권자와 비종교적인 유권자도 갈라졌다.(Putnam and Campbell, 2013: 448)<sup>6)</sup>

2) 튜크 신학원의 헤이스(Richard B. Hays) 교수는 Christian Century(August 24, 2004)의 "A Season of Repentance"라는 글에서 쓴 소리를 내뱉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라크 전쟁의 끔찍한 폭력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성 문제에 관해서는 하도 떠들어 탈진했다."(Wallis, 2008: 429 재인용.)

3) 최근의 책에서는 짐 월리스(Jim Wallis)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동성애 문제, 심지어 동성결혼에 관한 입장 차이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깨뜨리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 **물론 동성 간 결혼은 결혼에 관한 모든 논의에서 대단히 논쟁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Wallis, 2014: 414-415, 강조는 본 연구자).

4) 이태규, "[세계는 지금] 미국, 동성애 차별 급변… 초교 서류엔 아빠·엄마 '대신' 부모1·2"<한국일보>(2014.03.23); <http://v.media.daum.net/v/20140323210708684?f=o>

5) 본 연구자의 기억에 류대영 교수도 자신의 책 『미국 종교사』(2007)에서 이점을 지적한 것 같다.

6) 그들은 계속해서 다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이슈에 대한 입장이 바뀐다면 정치에서의 종교적 분열 또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성애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급속하게

또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교황 프란치스코 1세(Jorge Mario Bergoglio, Francis)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7)</sup>

교황이 풀어야 할 과제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지만 초점은 이혼과 재혼, 동성애와 동성 결혼, 낙태와 피임과 같은 가정 문제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윤세진, “절정 인기 속 취임 1주년 맞은 교황, 임기 2년째엔 해결할 과제 산적” <뉴스시스>[2014.03.13]; <http://v.media.daum.net/v/20140313194808959?f=o>).

본고에서 연구자가 동성애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극단에 치우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사회복지와 기독교사회복지와의 차별화(본질적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정통기독교의 교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더) 오늘날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동성애 관련 문제이기 때문임을 밝힌다.

**연구 문제.** 앞서도 어느 정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들에 대해 기존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가?”(연구문제)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동성애와 관련된 다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동성애 관련 문제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강한 사회적 이슈다.(2014./04./02에 기사를 다음에서 검색하였다.)

1)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http://v.media.daum.net/v/20140402161013597?f=o>; “알파류, 동성애 수간에 건준 ‘노골적 혐오’ 파문” <한겨레>(2014.04.02.);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1228>; “진선미 의원, 동성애 조장하는 개정안 폐기하라” <크리스천투데이>([014.04.02].)

2) 동성결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http://www.christiandaily.co.kr/news/미시건주-연방정부-동성결혼-증명서-효력-놓고-대립-35623.html>; “미시건주-연방정부, 동성결혼 증명서 효력 놓고 대립” <기독일보>(2014.03.30.); “팝스타 엘턴 존, 동성파트너와 5월 결혼” <동아일보>(2014.04.01); <http://v.media.daum.net/v/20140401031113665?f=o>.)

3) 동성가족의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http://v.media.daum.net/v/20130219193807461?f=o>; “독일 현재 ‘동성 커플 입양 금지’는 위헌” <연합뉴스>(2013.02.19); <http://v.media.daum.net/v/20130604212205924?f=o>); “푸틴 ‘동성애부부 아이입양 금지’ 법안 지지” <연합뉴스>([013.06.04])

4) 동성애자 교사채용(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Bangkok Post. (December 26, 1996)<sup>8)</sup>;

---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낙태에 대한 태도는 더욱더 보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Putnam and Campbell, 2013: 448).

7) 또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12년 10월 8일부터 한 달간 담임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생활양식과 의식, 목회 활동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목회자들의 윤리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에 대해선 목회자의 47.4%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거나 ‘무방하다’고 답했고 낙태(18.4%) … 혼전성관계(14.2%) 등에 대한 용인 비율도 높게 나왔다. **의도나 동성애 허용 의견은 각각 4.0%와 7.6%로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서화동, “대도시목사 월소득 287만원…일반인 85% 수준” <한국경제> (2013.01.30); <http://v.media.daum.net/v/20130130170216255?f=o>. 강조는 본 연구자)

8) 태국에서는 라자브트 기구 위원회(Rajabhat Institutes Council)가 “동성애자들의 전국 6개 교육 대학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6058>; “서울시교육청 ‘동성애자 교사 임용 가능?’<크리스천투데이> [2012.06.01].

5) 동성가족 최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佛 ‘전통 가족 지키자’...동성애반대 10만인 행진” <뉴스1>(2014.02.03); <http://news1.kr/articles/1522158>); “자식 원하는 동성연애자, 엄마를 대리모로 ‘경약’” <서울신문>(2010.07.27); <http://v.media.daum.net/v/20100727084104074?f=o>).

2)·3)·4)·5)의 문제는 1)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다. 1)이 본질적인 윤리 문제이고, 그 외의 2)·3)·4)·5)는 파생적인 문제의 성격을 지닌다.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NO라고 말하면, 당연히 동성결혼도 NO, 동성가족의 입양도 NO, 동성애자 교사임용도 NO, 동성애가족의 최외수정에 대해서도 NO라고 답할 확률이 매우 높게 될 것이다. 만약 반대라면 즉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YES라고 말한다면, 모든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답할 확률이 매우 높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사회복지는 성경해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강상우, 2010: 7-40 참조.;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동성애와 성경해석의 관계에 대해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연구 전제.** 본고에서 연구자의 전제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이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바로 무엇보다도 윤리에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Dos and don'ts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 다만 학자들이 명명한 ‘아디아포라’(Adiaphora: ἀδιάφορα “indifferent things”)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롭지만 말이다.(물론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지니신 분도 있을 것이다<sup>9)</sup>)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사실상 사회복지학과 달리 왜 기독교사회복지학(또는 교회사회사업, 교회봉사, 디아코니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강상우, 2011: 7-34 참조])이라는 영역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준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All Truth is God's Truth)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Dos and Don'ts라고 말하지 않는 영역(일종의 adiaphora의 영역, 비본질적인 윤리 영역)에서는 일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한계.** 말 그대로 본 연구는 소고(小考)다. 즉 “완벽한 체계를 세우지 않은, 가볍고 단편적인 고찰”<sup>10)</sup>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열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연구에 불과하다.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영역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이라는 과목의 내용으로서 상대적으로 학문다자간 연구(multidisciplinary study)의 필요성이 큰 영역이다. ‘사회복지+윤리+그리고 철학’의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의 영역

---

입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대 학생들에게 나쁜 사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Bangkok Post. [December 26, 1996]; Schüklenk and Riley, in Schüklenk et al., 2010: 61-62 재인용).

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wana&logNo=110037745477>의 블로그(blog)의 글 “아디아포라(adiaphora)의 영역은 없다”에서 송인규 박사의 글 참조.

10)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44704&q=%EC%86%8C%EA%B3%A0>.

에 대한 내용을 두루 섭렵해야만 한다. 이와 비교해서 기독교사회복지학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면 “기독교(일반 교리)+사회복지+윤리(일반윤리·기독교윤리)+철학(일반철학·기독교철학)”에 대한 광범한 지식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연구의 편의상 동성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연구의 한계를 본질적으로 가진다할 것이다.

## II 그리스도인, 기독교사회복지, 그리고 동성에

### 1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주인(主人)과 구세주(救世主)로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는 삶』(Full Life in Christ)에서 언급하였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Not of the world)이라는 구절(句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란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에 맞서 증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하늘나라, 즉 다른 세상의 정신과 사랑과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신적인 일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축복의 참여자로 만들게 됩니다.<sup>11)</sup>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머레이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맞서고 때로는 다른 세상의 정신과 사랑과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추상적인 기술(記述)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윤리에 근거한 사랑의 실천일 것이다. 하나님의 윤리에 근거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1) ‘이미 그러나 아직’의 하나님나라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삶을 영위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나라의 성취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not yet)”의 상태다.<sup>12)</sup> 그래서 체류자(Sojourner)라고도 불린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

---

1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slee1999&logNo=150174515084> 재인용; “‘Not of the world’ is not only separation from and testimony against the world, but it is also the living manifestation of the spirit, the love, and the power of the other world - of the heaven to which we belong - in its divine work of making this world the partaker of its blessedness.”(Andrew Murray, *Full Life in Christ*. (New Kensington, PA: Whitaker House, 2000). 72.

12) 중생과 양자됨, 그리고 성화와 영화에서의 ‘already not yet’에 대한 설명은 Ferguson(1999: 118 참조).

사는 세상을 해자(壕字, a moat)가 있는 성(城)에 묘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인 세상을 “계단이 집 안쪽으로 연결된 2층으로 된 집”과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1층은 세상이다. 2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이다. 계단은 1층과 2층을 연결해주는 통로다. 2층은 1층과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계단이 집 안쪽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회라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결된 계단을 통해서 왕래를 한다. 왕래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 매우 빈번하다. 세계화되고,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계단을 통한 왕래는 매우 많아지게 되었다. 물론 오늘날도 영성을 추구하는 집단(수도원과 같은)의 수가 과거보다 더 많다는 내용도 어디에선가 읽은 것 같다.(미국의 경우 우리에게 현대차 이름으로 알려진 투산[tucson]이나 산타페[santa fe] 같은 지역 부근을 중심으로).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면을 보면 과거에 수도사의 수도원 생활에 비해 현사회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단은 집 안에서 이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1층을 통과하지 않고 2층으로 갈 수 있는 집 밖에 계단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de facto) 존재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1층은 세상이다. 그곳에는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도 거기에 있다. 대부분이 거기에 있다. 1층은 세상의 법(규칙)이 지배한다. 2층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다, 아니 논리적으로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만 한다. 2층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한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자꾸 2층에 있어야 할 것이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2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1층에 삶을 동경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1층의 논리가 2층의 논리를 지배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1층의 윤리와 철학이 2층으로 아무런 여과작용(Filtering Process)없이 들어오려고 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2) Dos and Don'ts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과거 중세시대(학자들에 따라서 그때를 암흑기라도 하든 그 무엇이라고 하던 간에)에는 2층의 힘이 절대적으로 켜졌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니 형식적으로라도 ‘계단이 집 안쪽으로 연결된 2층으로 된 집’의 주인은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그였다.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언급하였고, 신의 영광을 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2층의 대표자는 립 서비스(lip service)이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행동거지를 일삼았다. 당시 그러한 지적은 2층 주민들에게서도 심심치 않고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층의 거주민들에게서도 항의의 소리가 나왔다. 오늘날 새로운 무신론자들과 같은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지적하는 기독교의 잔혹사(殘酷史)는 거의 그때로부터 기인한 것들이다. 2층 대표자의 잘못된 행동거지는 2층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그 이후에 계몽주의니, 휴머니즘이니, 다윈주의, 포스트모더니즘하면서 1층의 거주민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1층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과거에 모든 영역에서 2층의 거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학문에 있어서도 2층의 주민들이 강조해온 신(하나님), 영성,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1층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자신들의 삶의 규칙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주도권이 거의 2층에서 1층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 힘입어서, 1층의 과격하고 도발적인



주민들은 2층 주민들도 자신들이 만든 1층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2층의 거주민들이라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서도 과거의 잘못된 자신들의 기독교의 역사를 극단적으로 언급하면서 2층의 삶의 규칙을 바꾸려고 한다. 2층 거주민들의 일부의 입에서 1층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사실 2층의 주민들도 과거의 2층에 거주한 신앙의 선배들이 행한 성경과 상반된 비기독교적인 실천에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2층의 규칙을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1층의 거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과거 또는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2층 주민들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의 잘못된 해석과 그들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2층의 거주민이라는 아이덴티티(identity)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마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2층의 주민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삶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Dos and Don'ts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절대적으로 가능하지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절대도 불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이를 어길 수 없다.<sup>13)</sup>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재량행위(裁量行爲)가 아니라 절대적 기속행위(羈束行爲)로서 2층 거주민들에게 다가온다. 그것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될 하나님의 명령일 뿐이다.

세계화와 자본화의 논리로 1층과 2층은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외형으로 더욱더 단일화는 가시화되었다. 단지 이들 1층과 2층간의 진정한 차별은 이들 구성원들이 무엇을 따르느냐, 즉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다를 뿐이다. 1층의 거주민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에 사는 거주민들은 1층의 거주민들과 자신들이 다른 윤리체계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앞에다 ‘Christian’ 또는 ‘기독교(적)’라는 단어를 (의도적) 붙여서 자신들을 1층 사람들과 차별화했다. 앞의 그리스도적(기독교[적])이 붙는 것은 바로 이들의 세계관이 일반 사람들의 세계관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인들과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다. 사회복지라는 학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해 사회복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앞에 기독교를 붙여서 기독교사회복지(학)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일반 학자들 중에는 물론 이러한 명명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기독교세계관의 관점(기독교 윤리와 철학에 근거한)에서 하는 사회복지임을 표명하기 위해서 말이다. 계속해서 기독교사회복지(학)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13)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베드로 사도의 위선을 지적한다. 왜 그랬는가? 이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있[었기]”(갈2:14)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켈러(Timothy Keller) 목사는 복음이 진리 체계라는 것과 더불어 복음의 진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적한다. 바울은 베드로가 문자적으로 “복음을 따라 정중양으로 걷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여기서 정중양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오쏘[ortho]인데, 똑바로 가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오쏘던티스트[orthodontist, 치아교정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은 치열을 똑바로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첫째, 복음은 여러 주장들을 정리한 일련의 메시지, 즉 진리 체계라는 뜻이다. ... 둘째, 결정적으로 이 말은 복음의 진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Keller, 2013: 84).

## 2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학)는 사회복지라는 단어 앞에 ‘기독교(적)’라는 단어가 붙여서 이들 양자 간의 차이를 구별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처럼 이들 양자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 1) 기독교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기독교사회복지가 그 어떤 명칭의 스펙트럼으로 불리워지고 있든지(기독교사회복지라는 개념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예로 들어서 사회봉사[diakonia; διακονια], 사회선교, 교회사회사업, 기독교사회복지 등) 간에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 연구자들의 기독교사회복지 관련 제(諸)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독교사회복지가 가지는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장춘 교수는 기독교사회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정신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기독교의 다양한 생명자원들을 동원하여 취약계층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유장춘, 2002: 90). 박종삼 교수는 “기독교사회복지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독교적 참여 등 거시적 접근을 전제로 한다”(유장춘, 2002: 105 재인용)고 적고 있다. 김기원 교수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 중에서 주의해서 볼 것으로는 (1) 기독교사회복지학은 규범(規範)지향적(normative orientation)이라는 점과 (2) 가치중립적(value-free)이라기보다는 가치개입적(value-judgment) 학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 때문에 연구문제를 선정할 경우나, 명제나 이론의 구성과정에서,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가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의해야 할 것은 가치개입적이라고 할 때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불변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김기원 교수는 강조한다.(김기원, 2001: 205) 그렇다면 김기원 교수가 가치개입적이라고 할 때 그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 마디로 기독교세계관적 가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달리, 기독교사회복지학은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지향적이라는 것이다. 박종삼 교수 또한 교회사회사업의 동기가 신학적 동기가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회사회사업의 동기는 순수한 사회사업의 동기보다는 신앙적 동기가 강하다. 그러므로 신학적, 사회사업적 접근을 동시에 해야 한다.”(박종삼, 2000: 38). 박종삼 교수는 또 디아코니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봉사(디아코니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하는 봉사를 말한다. 디아코니아라는 개념 자체에는 기독교적 봉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비록 봉사의 내용이 일반사회의 그것과 같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동기가 부여된 것을 봉사(디아코니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종삼, 2005: 26). 전해정 교수는 사회선교라는 개념이 선교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선교는 교회의 사회봉사(사회사업, 사회복지 등)를 선교적 차원에

서 이해하려는 개념으로 선교신학에 강한 영향을 받은 개념이다”(전혜정, 2004: 234).

앞의 연구자들이 기독교사회복지 제개념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공통부모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떤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간에 기독교사회복지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실천이라는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단지 연구자들에 따라서 “기독교적 조망”, “그리스도의 정신”, “신앙적 동기” “가치개입적” “선교적 차원”이라는 말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은 바로 “기독교세계관”에 즉 기독교적 가치와 기독교적 윤리에 입각한 사회복지실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독교사회복지의 특징은 종교사회복지와 비교해볼 때에 더욱 더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 2) 기독교사회복지, 종교사회복지 그리고 일반사회복지

### (1) 기독교사회복지와 종교사회복지

먼저 캔다와 퍼먼(Edward R. Canda and Leola Dryud Furman)은 서비스에 관한 종교적 관점들을 “신념-가치-서비스”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다음 표와 같이 차이점을 비교한 것을 볼 수 있다.(캔다와 퍼먼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알파벳 순서로 종교를 나열한다. 단지 본 연구자가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만을 선택하여 수정하였을 뿐이다).

| 표: 서비스에 관한 종교적 관점들의 비교 |  |   |  |
|------------------------|--|---|--|
|                        | 신념   | 가치  | 서비스  |
| 기독교                    | (1) 유일신론 삼위일체설<br>(2) 신구약성서, 교회 전통, 신앙체험으로부터 나온 신념.<br>(3) 사람들은 죄를 범하기 쉬움,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가 조화, 의미 그리고 목적을 만들어줌                                  | (1) 가장 중요한 삶의 과업을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br>(2) 자선과 정의에 대한 헌신<br>(3) 개인적 욕구, 사회복지, 신의 의지간의 도덕적 관계   | (1)나-너의 도움관계<br>(2) 고우가 육체적, 열일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타인 및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임<br>(3) 간증, 기도, 서례, 성찬, 성직자를 적절하게 활용하기도 함   |
| 이슬람교                   | (1) 유일신론<br>(2) 코란, 공동체(umma) 전통, 교사, 법의 내용(shari'a)으로부터 나온 신념<br>(3)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마호메트는 알라의 예언자임, 개인과 사회의 안녕은 모든 면들에서 일라에 대해 복종하는 것에서 나옴. | (1) 가장 중요한 삶의 과업은 알라의 뜻에 따라 사는 것<br>(2) 기도의 삶과 정의에 헌신<br>(3)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과 보호를 공동체의 책임으로 여김 | (1) 도움관계는 하느님을 공경하고, 공동체 맥락에서 고우를 지지함<br>(2) 하느님 및 공동체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기초로서, 고우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돕는 것이 목적임<br>(3) 자선(zakat), 공동체 내의 상호지지, 코란에 대한 성찰, 일상적 기도, 그리고 종교적 의례를 활용하기도 함 |

|                      |  |   |  |
|----------------------|--|---|--|
| <b>유<br/>대<br/>교</b> | (1) 유일신론<br>(2) 성경(tanakh), 율법(halaklah),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나온 신념<br>(3) 사람들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경험에 의해 왜곡되기도 함. 죄악의 행동에는 화해가 필요함 | (1) 가장 중요한 삶의 과업은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하고, 유대인 공동체를 지지하는 것임<br>(2) 애정 어린 친절함과 정의에 헌신<br>(3) 개인의 내부적인 특질과 행동 모두에 대한 동정 | (1) 나-너 관계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고려되는 도움<br>(2) 유대인 공동체의 맥락에서 고유의 문제해결을 돕는 것이 목적인<br>(3) 유대적인 역할 모형만들기, 종교적 성찰을 활용하기도 함 |
|----------------------|--|---|--|

자료: Canda & Furman, 2005: 265-255 표 일부삭제<sup>14)</sup>

캔다와 퍼먼이 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종교사회복지는 각자의 종교들이 내세우는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에 입각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종교들 각자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는 바로 종교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2) 기독교사회복지, 종교사회복지 그리고 일반사회복지

이제 비교의 영역을 넓혀보자. 기독교사회복지와 종교사회복지, 그리고 일반사회복지가 가지는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독교사회복지와 종교사회복지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사회복지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와 이들 개념과의 차이는 단순히 실천 기술(skills)이나 방법론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념적, 정신적 세계관의 차이에 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일반사회복지, 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하면 외관상으로 실천의 원리 등이 “사랑의 실천”, “자선”, “인간의 존엄성”, “평등”, “정의”의 실현 등으로 성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외형으로부터 좀 더 들어가 그 내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穿鑿해 보면), 일반사회복지는 무엇보다도 일반 주류학문이 추구하는 논리 실증주의적 가치나 인본주의적 가치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종교사회복지는 그들 자신들의 종교가 추구하는 각종교의 교리(敎理, doctrine)에 입각한 사회복지실천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독교사회복지의 일반사회복지와 종교사회복지와 달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가르침(기독교세계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독교사회복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본적 가치(價値)를 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일반사회복지나 종교사회복지와 큰 차이를 지닌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4) E. R. Canda, "Conceptualizing spirituality for social work: insights from diverse perspectives", *Social Thought* 14(1), (1988), 30-46을 저자들이 허락을 받아서 수정·보완하였다고 한다. 저자들은 종교의 순서는 영어 철자순서로 나열한 것이라고 한다. 본 연구자는 이들이 수정한 표에서 불교 힌두교(베단틱), 무속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략하였다.

15) 기독교사회복지와 타종교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Canda and Furman(2005)은 ‘가치 밝히기’(demonstrating value clarity)를 지적한다. 그리고 종교사회복지사업과 일반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태수(1999)는 “종교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각 종교의 기본 가르침에 따른 인간의 구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반사회복지사업과 구분된다.”고 지적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성에 입각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이들 일반사회복지와 종교사회복지 등과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적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일반사회복지와 종교사회복지,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의 특성비교**

| 항목         | 일반사회복지   | 종교사회복지                 | 기독교사회복지               |
|------------|--|------------------------|-----------------------|
| 지향점        | 개인적 구조적 요인에서 오는 인간 조건의 열악함을 극복 → 평등한 사회상의 실현(well being) | 각 종교의 기본 가르침에 따른 인간 구원 | 기독교(예수)의 가르침에 따른 인간구원 |
|            | 상황의 변화   | 존재의 변화                 | 전인적 변화                |
| 원리         | 인간에 대한 존엄성, 평등, 및 사회연대의식의 실현                             | 사랑, 자비 등의 실천 사상.       |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실천 사상.    |
| 동원 수단      | 공적 자원과 민간자원의 동원  | 종교계 내의 물질 인적 자원        | 기독교 내·외의 물질 인적 자원     |
| 근간         | 사회복지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이론 및 전문지식                                | 종교적 가르침                | 기독교(예수)적 가르침          |
| 궁극적인 관심 영역 | 생활의 조건을 구성하는 영역에서의 곤란해소 (물질적 영역이 우선시 됨)                  | 영적인 구원                 | 전인적 구원 (영적+물질적 구원)    |
| 주된 대상      | 공공부조 대상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일반                                | 가난하고 소외된 자.            | 가난하고 소외된 자. 피조세계      |
| 강점         | 사회복지실천 방법론   | 사회복지실천 동기              | 실천의 기독교적 동기.          |

자료: 이태수, 1999와 권경임, 2004: 20 제인용의 틀에 맞게 기독교사회복지 첨가(강상우, 2011)

### 3 동성애

동성애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2층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고 산다. 아니 반드시 살아야만 된다. 오늘날 사회분위기(다원주의·인본주의·포스트모더니즘·틀레랑스 등)로 인해 1층의 거주자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또 2층의 일부 과격하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1층과 2층의 일부 거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1층의 규범과 원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1층 거주민들은 성적 다양성, 성적 지향성, 가족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동성애에 대해 찬성(pro-gay)을 말한다. 동성애에 대해 거부(anti-gay)하는 2층 거주민들을 향해 틀레랑스(tolerance)가 없다고 비난한다. 또 과거 동성애와 관련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위, 다

시 말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극단적 핍박의 사실들을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2층 거주민들은 1층 거주민들과 같은 목소리로, 또는 실질적인 연합의 형태로 그리스도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비판한다. 물론 과거 동성애자들에 대한 잘못된 성경해석으로 인해, 때로는 정치적, 사회적 야합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에게 가했던 극단적 행위는 잘못된 것임은 스스로 반성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준 견해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1층의 연구자들이 말하는 동성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은 단지 참고사항(參考事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평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길평원·민성길, 2014: 7-36 참조)<sup>16)</sup> 이는 본 연구자가 연구자들이 제시한 동성애의 원인들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에 대한 설명에 먼저 귀 기울여야하며, 또 그것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자세인 것이다. 또 본 연구자는 동성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에 대한 이해는 동성애를 이해하는데 compassion과 sympathy를 가지고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부 유익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그렇지만 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에 대한 가치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지만 말이다.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간음은 죄지만, 왜 그녀가 간음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녀의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어질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그녀의 간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라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말이다. 동성애도 성의 범주에 해당되며, 동성결혼과 입양 등과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족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 1) 성경해석과 사회복지

강상우(2010)는 성경해석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사회복지실천에도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성경해석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성경해석은 사회복지실천에도 밀접한 영향

---

16) 참고로, 길평원·민성길 교수의 논문을 통해서 다음의 지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이라는 논문이 발표될 때 언론이 대서특필했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고, 그 사이에 서구 전반적인 인식과 법이 바뀌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더라도 선불리 인정하기 보다는 그 결과가 정확하진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길평원·민성길, 2014: 28); 또 동성애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한 조인숙·유정철(2014: 117-151)의 다음의 지적도 매우 합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1990년대 초반의 논문은 끝없이 회자되고 있는 반면에 이를 부정하는 많은 논문들은 우리 사회에 잘 소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될수록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과학적 진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성적 취향 소수자의 인권 보호 차원으로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국내에도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도입될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를 더 큰 갈등 국면으로 내모는 형국이 될 것이다.”(조인숙·유정철, 2014: 143-144).

을 준다. 인간의 이해 문제 즉, 인간을 자율적 인간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이해하느냐, 빈곤(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성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구조적 문제로 이해할 것이냐,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전도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도 모두 성경해석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성경의 해석하고 사회복지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강상우, 2010. “논문요약”)

### (1) 동성애와 일반사회복지.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 견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일반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발표한 정신장애 분류체계인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일 것이다. DSM<sup>17)</sup>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바로 일반사회복지에서 동성애에 대한 접근방법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는 정신의학과 심리학 등의 이론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성애는 1952년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통계편람(DSM) 제1판을 출간하면서 사회 병리적 성격장애 범주 안의 성적 일탈의 일부로 분류하였다. 1965년에 발간된 DSM-II는 성격장애의 범주 내에 성적 일탈이라는 9개의 영역 중에 동성애가 수록되었으며, 1973년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결과로 미국정신의학회 이사회에서는 동성애 조항을 공식적으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 동성애 조항이 성적 지향장애(sexual orientation disturbance)라는 범주로 대체되었다. 이로 인해 동성애가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방해가 되는 경우, 즉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에 장애를 보이면서 변화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으로 간주되었다. 1980년 DSM-III에서는 동성애가 진단 기준에서 삭제되는 대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자아 비동조적(ego-dystonic)동성애라는 조항으로 교체되었다. 자아비동조적 동성애를 진단하는 기준은 이성애적 관심이나 흥분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거나 약하며, 이성애적 관계를 바라고 있지만 그 관계가 손상되었으며, 동성애에 대한 관심과 흥분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만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1987년 출간된 DSM-III-R에서는 자아 비동조적 동성애 조항도 삭제되어 동성애를 진단하는 범주가 사라졌다. 1994년에 출간된 DSM-IV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관한 진단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박경, 2013: 262 재인용: Schüklenk and Riley, in Schüklenk et al., 2010: 43-65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와 성교육교사지침서(교육부)는 동성애를 질환이 아니라 ‘성적지향’으로 규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에 기한 평등권침해를 차별행위로 규정한다.”<sup>18)</sup>(신광현, 2012: 151)

17) DSM은 APA에서 1952년 DSM- I 이 발표된 이후 2000년에 DSM- IV-TR(Text Revision)이 2013년에 DSM-5가 발간되었고, WHO에서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인 ICD-11을 2015년에 출간예정이라고 한다.

18)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권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개별심의 기준에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

오늘날 의학계나 사회복지학계 등에서의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 동성애는 극히 일상적인 것이며 극히 자유로운 한 개인의 성적 취향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성적 소수자로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인격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문제들에 대해서 그리 윤리적인 딜레마를 느낄 필요성이 매우 작다. (1) 동성애는 이성애·양성애·무성애처럼 하나의 성적 형태에 지나지 않게 된다. 단순히 개인의 성적 성향에 불과한 것이지,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사들은 동성애자들의 성 지향성을 바꾸기보다는 이들 동성애자들이 이 사회의 차별로부터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치료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즉 동성애에 대한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나 성적교육 치료(sexual reorientation therapy)가 아닌 게이긍정 치료법(gay-affirmative therapy)이 제공되게 될 것이다.(Crooks & Baur, 2010: 202). 또 동성애자들의 성적 정체감을 더욱더 견고히 형성하기 위해서 캐스(V. Cass)가 소개한 이론적 모델을 사용하여 강한 동성애적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원조할 것이다.<sup>19)</sup>

- 1단계: 정체성 혼란(Identity confusion)
- 2단계: 정체성 비교(Identity comparison)
- 3단계: 정체성 내성(Identity Tolerance)
- 4단계: 정체성 수용(Identity acceptance)
- 5단계: 정체성 자긍심(Identity Pride)
- 6단계: 정체성 통합(Identity Synthesis)(박경, 2013: 271-274 재인용)<sup>20)</sup>

(2) 동성결혼의 경우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동성결혼의 옹호자들은 각국의 사례나 역사적 사례들을, 심지어는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사례들을 들어서 동성애 결혼을 옹호할 것이다. 과격한(radical)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기존의 결혼에 대한 개념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실상의 동성결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옹호자들도 과격한 동성애 주장들에 대해 옹호할 것이다. (3) 동성가족의 입장에 대해서나, (4) 동성애자 교사채용(임용)에 대해서도, (5) 동성가족 최외수경(IVF: in vitro fertilization)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반동성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에 더욱 박차(拍車)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예가 바로 A. 골드 외 등(A. Gold, E. C. Perrin, D. Futterman, S. B. Friedman)에 의해서 Pediatric Review에 게재된 “Children of gay or lesbian

---

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신광현, 2012: 151, 1번 각주; 조국, 『보노보찬가』, [생각의나무, 2009], 160); 200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에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하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인터넷포탈 사이트도 '동성애', '이반'이란 단어를 성인용금지어에서 해제하였다.(신광현, 2012: 151, 2번 각주).

19) 다음을 참조하라. V. Cass,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Homosexuality 4(3), (1979), 219-235; V. Cass,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Testing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Sex. 20. (1984), 143-167.

20) 동성애자가 이를 공표하는 커밍아웃(coming out)에는 인지하기, 수용하기, 동성애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등의 단계가 있다.(Crooks & Baur, 2010: 207-209 재인용).

**동성애 커밍아웃단계: 자기인지 ⇨ 자기수용 ⇨ 공식적으로 밝히기 ⇨ 가족에게 말하기.**



parents”이라는 연구일 것이다. 그들은 이 글에서 “게이나 레즈비언 부모의 자녀들이 이성애 가족에서 양육된 아이들과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성적 발달 면에서 다르다고 제안하는 데이터가 없음을 지적한다.”<sup>21)</sup> 이러한 친(親)동성애적 연구 자료를 가용한 증거로 채택한 연구자들은 “동성애자의 입양을 금지한다든지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 사회와 양립될 수 없다.”(Schüklenk and Riley, in Schüklenk et al., 2010, 62)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들의 친동성애적 연구 결과들에 대해 옹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표: 동성결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각국의 태도 |   |
|----------------------------|---|
| 보호법제정                      | 캐나다, 아일랜드, 슬러베니아, 덴마크,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
| 동거 인정                      |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아이슬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
| 결혼 인정                      |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
| 입양권 허용                     | 네덜란드.   |

유민, 2012: 178, 표의 제목은 연구자

각국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또는 예상할 수 있듯이 바로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에 대한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동거 ⇨ 동성결혼 ⇨ 동성가족 입양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바로 미끄러지는 경사면(Slippery slope)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된다. 아무리 미끄러지는 경사면의 오류(Slippery slope fallacy)를 얘기한다고 해도 말이다. 그 다음에 저들은 무엇을 주장할까?

## (2) 동성애와 기독교

성경해석은 사회복지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Crooks and Baur, 2010: 199; McMinn, 2006: 168-176; Balswick & Balswick, 2009: “5장. 동성애: 기독교적 반응”, 109-125; Canda & Furman, 2005: 205-215).

캔다와 퍼먼(Canda & Furman, 2005)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네 가지 이념적 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부정, (2) 한 인간으로서는 포용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21) A. Gold, E. C. Perrin, D. Futterman and S. B. Freidman, “Children of gay or lesbian parents.” Pediatric Review 15. (1994). 354-358; ABSTRACT: “There are no data to suggest that children who have gay or lesbian parents are different in any aspects of psychological, social, and sexual development from children in heterosexual families.”

비난함, (3) 긍정, (4) 기독교로부터 탈피 등이 그것이다. 캔다와 퍼먼은 “많은 교파들이 동성애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들과 가르침들에 대해 논의해 왔고, 그들이 이러한 쟁점들을 논의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빠르게 수정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고 기독교 내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한다.(Canda & Furman, 2005: 207).

### 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네 가지 이념적 반응

#### 부정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를 종교적인 율법으로 받아들임  
 동성애자를 처벌하라는 뜻으로 성경 구절을 해석함  
 동성애를 비정상적이고 음란하며 범죄행위로 낙인함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규정하여 모임에서 배척하고, 모임을 떠나거나 ‘변화’되거나 은둔한 것을 강요함

#### 한 인간으로서는 포용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비난함

이성애주의를 종교적인 율법으로서 받아들이는 반면에 가부장제도는 의문시함  
 동성애적인 행위는 비난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보호는 긍정이라는 뜻으로 성경 구절을 해석함  
 동성애자를 고유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들로 받아들임  
 동성애적인 성관계의 표현을 죄로서 낙인함  
 동성애자를 모호하게 취급하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을 제한함

#### 긍정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를 억압적인 사회구조물로서 비난함  
 성경구절들을 피억압자에 대한 지지적 수용 및 해방과 연관시켜 해석함  
 동성애자를 완전한 인간으로서 수용하고, 그들의 성적 지향 및 성관계도 수용함  
 동성애들이 모임의 공개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인정함  
 모임들에서는 동성애자와 관련된 쟁점들에 관한 사회적 정의를 옹호함

#### 기독교로부터 탈피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를 억압적인 사회구조물로서 비판함  
 기독교를 본래부터 억압적인 종교체도로 이해함  
 동성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비판하고 거부함  
 동성애자들과 옹호자들이 기독교적인 모임에서 탈피함  
 새로운 얼알 지지집단들과 종교조직들의 형성

자료: Canda & Furman(2005: 208)

볼스윅 부부(Jack O. Balswick & Judith K. Balswick)는 “5장. 동성애: 기독교적 반응”(2009: 109-125 참조)에서 동성애에 대한 대안적 태도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가장 오른(극우)쪽에

위치하는 태도로는 동성애적 지향을 본인의 선택으로 보는 입장으로 시작해서 동성애자를 변화시킬 대상으로 보는 태도(중도우), 헌신된 관계일 경우 동성애를 수용하는 태도(중도좌) 그리고 가장 왼쪽(극좌)에 섹스를 오락행위로 보는 태도까지 매우 다양한 태도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표: 동성애에 대한 대안적 태도들

|                 |                         |                       |                         |
|-----------------|-------------------------|-----------------------|-------------------------|
| 섹스를 오락행위로 보는 태도 | 헌신된 관계일 경우 동성애를 수용하는 태도 | 동성애자를 변화시킬 대상으로 보는 태도 | 동성애적 지향을 본인의 선택으로 보는 태도 |
|-----------------|-------------------------|-----------------------|-------------------------|

자료: Balswick and Balswick, 2009: 113

맥민(Lisa Graham McMinn, 2006: 168-170)도 동성애의 근거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네 가지 범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범주로는 동성애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선택하지 않아야만 하는 최악 된 생활방식에 대한 선택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이며 동성애자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거부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로 맥민은 설교자 제임스 케네디(James Kennedy)와 심리학자 폴 카메론(Paul Cameron)을 든다. 두 번째 범주로는 동성애는 성별혼란이나 부모 타인과의 나쁜 관계 혹은 학대의 결과 등으로 인한 동성애자의 사회 환경으로부터 생기는 장애로 본다. 즉 동성애는 단순한 선택의 그 이상의 문제이지만 치유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습관과 경향을 버려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는 제임스 돕슨(James Dobson), 제리 파웰(Jerry Falwell) 목사를 그리고 그러한 경향을 가진 단체로는 ‘엑소더스 사역’(Exodus Ministries)을 들고 있다.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것은 단순히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도 아니고,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상흔도 아니라고 본다. “동성애는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학습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생물학적 기질을 포함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동성애를 우리의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몸에 스며들어 있는 일반적인 타락의 결과라고 본다.”(McMinn, 2006: 169) 그리스도인 동성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로 금욕이라고 제안한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는 볼스윅(Jack and Judith Balswick) 부부다. 네 번째의 범주는 동성애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생물학적 근거를 갖는다고 믿는다. 성경의 동성애 근거 구절을 부정한다. 이성애자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동성애자를 만드셨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 받아들이는 이성애자들이 성적 상대방과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듯이 동성애자들도 자신들의 성적 상대에서 착취의 관계가 아닌 헌신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에 대표적인 사람은 게이인권 활동가이면서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의 임원이기도 한 멜 화이트(Mel White) 목사를 들 수 있다고 한다.(McMinn, 2006: 168-170).

## 2) 동성애 해석과 사회복지실천

칸다와 퍼먼(Canda & Furman, 2005)의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네 가지 이념적 반응과 볼스윅(Balswick & Balswick, 2009) 부부가 분류한 동성애에 대한 대안적 태도, 그리고 맥민(Lisa Graham McMinn, 2006)이 제시하고 있는 동성애 근거에 대한 믿음의 구분 범주들이 서로 일치한다고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지만 이들의 분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성애에 대한 이념적 반응이 동성애에 대한 대안적 태도, 그리고 동성애의 근거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앞의 칸다와 퍼먼, 잭과 주디스 볼스윅 부부, 그리고 리사 그레이엄 맥민 등이 제시한 내용들을 조합하여 동성애 관련 스펙트럼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보고자 한다.

표: 동성애 관련 스펙트럼<sup>22)</sup>

| 항목/범주            | 범주1                          |  | 범주2                             | 범주3  | 범주4       |
|------------------|------------------------------|--|---------------------------------|--|-----------|
| 하나님 앞에 범죄(Sin)유무 | 범죄                           |  | 범죄                              | 범죄 아님  | 범죄 아님     |
| 치유 유무            | 치유 가능                        |  | 치유(?)                           | 치유불가능  | 치유불가능     |
| 동성애 행위 유무        | 동성애 행위 안됨                    |  | 동성애 행위 안됨                       | 동성애 행위 가능  | 동성애 행위 가능 |
| 성적 변화            | 이성애로 변화 가능                   |  | 금욕(독신)                          | 동성애 (현신적 게이 관계)  | 동성애       |
| 대표적 인물과 단체       | Paul Cameron & James Kennedy | Jerry Falwell & James Dobson Exodus Ministries | Jack Balswick & Judith Balswick | Mel White 게이교회 (The Universal Fellowship of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 |           |

자료: Canda & Furman, 2005: 207; Balswick and Balswick, 2009: 113; McMinn, 2006: 168-170 내용을 재구성

22) 법률에서도 매우 이슈가 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은 혼인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법률은 즉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속권, 재산분할권 등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윤리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간의 결혼에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사회적·국가적 결정의 문제이며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물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여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대하여도 ‘동성 간의 결혼은 합법화되어야 한다’(Gay marriage should be legal)는 주장에서부터 ‘동성 간의 결혼은 합법화되지 말아야 한다’(Same-sex marriage should not be legal)거나, ‘동성 간의 결혼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다.’(Same-sex marriage would harm society)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논쟁적임을 두말할

본 연구자가 앞의 연구자가 분류한 유형을 섞어서(mixed)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어보았다. 1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캔다와 퍼먼의 “부정”, 볼스윙 부부의 “동성애를 변화시킬 대상으로 보는 태도” 맥민의 ‘죄된 생활방식에 대한 선택’의 내용과 가까운 것으로서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범죄(Sin)로 본다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반드시 치유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성애자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대표적인 인물과 단체로는 극단적인 Paul Cameron과 James Kennedy 그리고 이들보다 좀 더 온건한 James Dobson을 들 수 있다.

2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캔다와 퍼먼의 “한 인간으로서는 포용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비난함”, 볼스윙 부부의 “동성애적 지향은 본인의 선택으로 보는 태도”에 가깝다. 동성애는 범죄이지만, 동성애 성향을 매우 복합적인 원인에 있으며 인간의 일반적 타락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말처럼 그리 쉽게 치유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 대신 동성애자들에게 금욕(독신)의 삶이 최선의 선택임을 권장한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를 금지한다.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볼스윙 부부(Jack and Judith Balswick)가 여기에 속한다.

3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캔다와 퍼먼의 “긍정”과 볼스윙 부부의 “헌신된 관계일 경우 동성애를 수용하는 태도”를 주된 이들이 해당된다. 맥민의 네 번째 범주에 해당된다. 이들은 동성애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 등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Sin)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며, 동성애를 이성애로 고치거나 독신과 같은 금욕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 결혼이 배우자 상호간의 헌신된 삶의 요구하여지듯이, 동성애자 상호 간의 헌신된 게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Mel White 목사와 동성애자들의 교회(게이 교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네 번째 범주는 매우 극단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나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지 않는 동성애자들의 분류이다. 캔다와 퍼먼이 “기독교부터 탈피”로 분류한 이들과의 차이점은 이들은 기독교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기독교라는 곳에 한 발을 담그고 있다는 점이며, 이들의 주장은 극단적인 비기독교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같다는 점이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를 가능하다. 동성애 관계에서의 상호간의 헌신과 정절은 필요하지 않는다. 섹스는 단지 오락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볼스윙 부부가 제시한 “섹스를 오락행위로 보는 태도”와 비슷하게 이들에게 동성애적 섹스는 오락적 행위로 성적인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 (1) 동성애 관련 문제와 동성애 관련 스펙트럼

본 연구자가 연구문제로 제시하였던 사항들에 대해서 앞의 동성애 관련 스펙트럼의 4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네 가지 범주에 속한 자들이 연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예상해 보기로 하자.

---

나위가 없다.”(홍완식, 2011: 84-85).

표: 본고의 연구문제에 대한 반응 예상

| 연구문제  | 범주 | 범주1 | 범주2 | 범주3 | 범주4 |
|---|----|-----|-----|-----|-----|
| 1)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    | 거부  | 거부  | 수용  | 수용  |
| 2) 동성결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   |    | 거부  | 거부  | 수용  | 수용  |
| 3) 동성가족의 입양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                                  |    | 거부  | 거부  | 수용  | 수용  |
| 4) 동성애자 교사임용(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    | 거부  | 거부  | 수용  | 수용  |
| 5) 동성애가족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    | 거부  | 거부  | 수용  | 수용  |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관점(하나님 앞에서 범죄냐 아니냐?)은 다른 관련 문제들과 연결되어 나타나게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성애에 대한 관점이 본질적인 물음이며, 그와 관련된 결혼, 입양 등은 동성애라는 물음에 대한 파생적 물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Sin)로 이해하는 범주1과 범주2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범죄로 이해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거부하게 되며, 이는 당연히 동성결혼과 동성가족 입양, 동성애자 교사채용<sup>23)</sup>에 대해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범주1에 속하는 자들은 범주 2에 비해 강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범주1에 비해 범주2는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포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동성가족의 체외수정에 대해서도 거부할 것이다. 범주3과 범주4는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보지 않고 생물학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해서 수용의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며, 동성가족의 입양과 교사채용 그리고 체외수정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 (2) 본 연구자의 동성애에 대한 관점

본 연구자는 위의 동성애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 연구자는 동성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성적 범죄(동성애혐오[homo-phobia]가 아닌, 간음과 같이 취급되어야 할<sup>24)</sup>)라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보는 성경해석의 입장에서 있다. 결

23) 이 경우는 커밍아웃한 교원임용에 합격한 예비선생님이나 현직교원으로 재직 중인 선생님이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비시험에 합격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반동성애 단체를 중심으로 임용반대로 나타날 것이며, 현직교사의 커밍아웃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별히 친동성애적 부모가 아니라면 자신들의 자녀를 커밍아웃한 교사에게 맡기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성적 취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다른 곳에서 불법적 동성애현장(동성애 마약사건 같이; <http://v.media.daum.net/v/20140327173214760?f=o>)에서 노출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혼에 대해서는 신학자 월터 브루그먼(Walter Brueggemann)이 언급한 대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룬다”(Brueggemann, 1982: 47; Lutzer, 2011: 66 재인용)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고든 D.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Gordon D. Fee & Douglas Stuart)가 지적한 대로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피와 스튜어트의 주장을 길지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 전체가 동성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반대하는 동성애란 타인을 욕보이는(abusive)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상호 동의하에 일부일처의 원리에 따라서 사사로이 동성애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아무리 석의를 해 보아도 성경이 그런 유의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화적으로 그러한 동성애는 20세기의 상황으로서 1세기에는 없었던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지침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에 대한 신약의 금지가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것일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욱이 이 지침들 가운데 몇 가지는 옳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원리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석의상으로나 역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4-28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는 분명히 ‘욕보이는’ 형태의 동성애가 아니었다. 거기서 말하는 동성애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파트너를 정해서 하는 동성애였던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동성애[한글개역성경은 ‘남색’으로 번역하였음-역주]라는 바울의 말은 문자적으로 남자들 간의 동성애를 의미한다. 성경 전체가 동성애를 반대하며 늘 그 문제를 도덕적인 맥락에서 다루고 있으며, 또한 1세기와 오늘날은 선택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 입증된 바 없기 때문에, 동성애가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라는 주장에는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Fee & Stuart, 2001: 122-123).

다만 본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범주 1보다는 범주 2에 가깝다. 왜냐하면 먼저 볼스워 부부의 “동성애자가 자신의 지향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Balswick & Balswick, 2009: 122)<sup>24)</sup>는 지적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이들 부부의 다음과 같은 지적 또한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과 왜곡된 성은 다만 도덕적 의미에서 양분되는 것이지만 한 개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진정한 성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

---

24) 어윈 W. 루처(Erwin W. Lutzer) 목사님의 견해에 동의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마음을 버리고 동성애자들을 섬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동성애를 교회 안에서 버 것이 벌어지는 간음이나 탐욕,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포르노 등의 죄와 분리된 특별한 것으로 대해선 안 된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Lutzer, 2011: 124).

25) 동성애 문제의 책임성에 대해서 다음의 중독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중독을 질병이라고 말하면, 중독자들에게 반사회적인 행동과 선택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게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다. 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모델에 따르면 중독의 발병은 중독자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독에서 회복하는 것은 중독자의 책임이다. 우리는 심장병 환자에게 발병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심장병 진단을 받았으면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치료제 복용을 통해 병에서 회복하는 것은 환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중독이 병이라는 믿음은 중독자에게 회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회복은 무임승차가 아니기 때문이다.”(Linden, 2013: 87).

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피조계의 일원이므로 성적으로 왜곡되어 있으며 어떤 면으로든 온전성이 결여되어 있다”.(Balswick & Balswick, 2009: 44). 동성애적 성향이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겠지만, 이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혐오적성향(嫌惡的性向, homophobia)을 보이는 것은 자제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sup>26)</sup>

### III 윤리적 의사결정

지금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도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즉 친동성애(Pro-gay)적 관점을 지닌 사람은 동성애, 동성결혼, 동성가족입양, 동성교사 채용(임용) 그리고 동성가족 체외 수정(IVF)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한 채 매우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반동성애(Anti-gay)의 관점을 지닌 자들은 동성애와 관련된 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예로 연구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동성애에 관한 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동성애와 관련된 제문제과 연관된 윤리적 딜레마들에 대해서 일 반사회복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을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 1 사회복지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는 윤리적 갈등으로도 불리워지는 것으로,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선택해야할 사안(선택, 자원분배, 정책의 선택 등)에서 가치가 서로 충돌함으로 인해 윤리적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지, 또는 어떤 것을 우선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 상황을 가리킨다.<sup>27)</sup> 트릴레마(trilemma)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가 복

---

26) 이에 대해서는 친 동성애자들(Pro-gays)도 다음과 같은 매우 극단적인 형태의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해야만 한다. “동성애 책, 잡지, 신문은 일반적으로 종교, 그리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신랄하고 대개 외설적인 공공연한 비난으로 가득하다. 한 활동가는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 교회들을 법률의 보호 밖에 둘 것을 요구한다. 다른 역사가는 기독교의 성직자들을 나치나 KKK회원과 동일시하는 한 광고 캠페인의 개요를 주의 깊게 서술한다. 동성애의 무대 연기자들은 성직자 옷차림으로 분장하고서 음란한 행동을 연출한다. 동성애자 권리를 주장하는 만화가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와 향문 성교를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한다. 이것들은 다른 경우에는 사실 짐작고 사랑이 담겨 있는 문화에서 외따로 떨어진 일개 사례가 아니다. 그런 태도는 동성애 운동에 만연해 있다.”(Hedges, 2012: 157 재인용).

27) “윤리적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절충(compromise)이다.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가 무엇인지? 혹은 준수해야할 도덕적 의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선택하는 윤리적 결정은 단순히 올바른 것과 나쁜 것(the right vs the wrong) 사이에서 하나를 구별해 내는 것과 같은 쉬운 경우(soft case)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부딪치는 현실은 다음 두 가지 경우의 까다로운 사례(hard case) 중 하나이다. 그 하나는 도저히 서로 양립할 수 없지만 둘 다



잡(이해당사자가 여럿이 존재하는 경우 등)해지고 다른 여러 개의 가치의 충돌과 더불어 다(多)선택의 존재로 인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윤리적 선택은 더욱 복잡해져 가는 경향을 보인다.

## 1) 사회복지학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일반사회복지 실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복지학에서는 다양한 일반 윤리이론들과 철학이론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기덕 교수의 책 『사회복지 윤리학』은 다른 저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양한 윤리적 기초(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제2부 사회복지학의 윤리적 기초”를 중심으로 보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김기덕, 2002. “제2부”; 김상윤, 2008; 정성욱, 2004; 오혜경, 2005; 고수현, 2009; 이효선, 2004; 양옥경 외, 2010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분석 한국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김기덕(2004: 13-46) 교수는 번역서 2권과 국내서 5권을 분석하면서 당시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이라는 교과서가 지닌 한계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 글에서 검토된 2권의 번역서와 5권의 국내학자들의 저서들은 약간의 편차를 보이지만, 대부분 미국식 임상사회사업중심(social work-oriented), 응용윤리성격의 규범윤리학 중심(normative ethics-oriented), 근대적-전통적 윤리지향(modernist ethics-oriented)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별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실천과는 구별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과 논의들은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응용윤리 중심의 규범윤리학에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할당되어, 한국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윤리적 실태에 대한 기술 윤리학적 논의 및 사회복지 윤리학자체에 대한 의미와 그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 윤리학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칸트식 의무론과 공리주의 중심의 목적론으로 대별되는 근대 윤리학에만 한정되어 논의를 소개하고 있어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대안윤리로 제시되고 있는 페미니즘 윤리학(feminist ethics), 포스트모던 윤리학(postmodern ethics), 다양한 비판 윤리이론(radical-critical ethics) 등은 거의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적 사회복지의 실정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윤리 및 철학의 모색은 이와 같은 현행 교과서들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기덕, 2004: “논문초록”).

여기서 의문을 하나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모색에 대한 논의에도 한정되어 있는데, 과연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서 경험하게 될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에 충분한가라는 의문점이다.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앞의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실천이 학문적 정체성이라고 할 때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겠는가.(일반사회복지의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 방법에 대한 윤리적 이해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

윤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가치의 의무들 가운데 꼭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둘 다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실천행위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이다.”(Reamer, 1999: 43; 김기덕, 2002: 254-255 재인용).

지닐 수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강상우(2012)는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글에서 ‘실천 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 2) 사회복지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sup>28)</sup>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의 완만한 과정을 위해 사회복지학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의사결정모델(Ethical Decision-Making Models)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형으로는 M. 룯즈(M. Rhodes, 1986), M. 조세프(M. Joseph, 1985), H. 루이스(H. Lewis, 1984), 매티슨(Mattison, 2000), F. 르웬버그와 R. 돌고프(F. Lowenberg & R. Dolgoff, 1996)과 F. 리머(F. Reamer, 1998) 그리고 E. P. 콘그레스(E. P. Congress, 1999) 등의 모형이 있다. F. 로웬버그와 R. 돌고프, F. 리머와 E. P. 콘그레스의 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번역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구자로는 양옥경 교수의 모형(양옥경 외, 2010: 143-166 “제6장.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결정모델”)과 이효선(2004) 교수의 모델 연구가 있다. 특히 이효선 교수는 기존의 연구모형을 고찰한 후(이효선, 2004: 167-180)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과 새로운 모델을 논의하였다. 이효선(2004: 167-193) 교수의 논의에서 주목할 것은 ‘우선순위’의 근거를 라이너(H. Reiner, 1964)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마닝(Susan S. Manning, 2003)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효선 교수가 아마도 독일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H. Reiner와 S. S. Manning의 이론에 근거해서 자신의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김상윤, 2008, 136-149; 오혜경<sup>29)</sup>, 2005, 135-154; 이효선, 2004; 167-193; 김기덕, 2002, 267-310; 고수현, 2009; Lowenberg & Dolgoff, 2000; Congress, 2005; Reamer, 2005. 참조)

김기덕 교수는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델들을 윤리적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인 “원칙과 과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룯즈(Rhode, 1986)가 제시한 연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데, 윤리적 의사결정의 대

---

28) 이들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라. M. Rhodes, *Ethical Dilemmas in Social Work Practice* (Boston, Mass: Routledge & Kegan Paul, 1986); H. Lewis, “Ethical Assessment,” *Social Casework*. (1984), 203-211; M. Joseph, “A Model of Ethical Decision Making in Clinical Practice,” in C. Germain, ed., *Advances in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Washington DC: NASW, 1985); A. Conrad & V. Joseph, “A model for ethical problem solving: A process for resolving questions and quandaries, presentation at the Annual NASW conference, (Cleveland, OH, 1996).; H. Lewis, “Ethical Assessment,” *Social Casework*. (1984), 203-211; F. Lowenberg & R. Dolgoff, *Ethical Dilemmas for Social Work Practice* (Itasca: F. E. Peacock, 1996); F. Reamer, “The Evolution of Social Work Ethics,” *Social Work*. 43. (1998). 448-500; E. P. Congress,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Identifying and resolving professional dilemmas* (Wadsworth: Thomas Learning, 1999).

29) 특별하게 오혜경 교수는 자신의 책 5장에서 E. Congress의 ETHIC 의사결정모델을 소개한 후에(2005: 135-154) Congress의 ETHIC 의사결정모델을 “6장.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윤리적인 실천”(Ibid, 155-180), “7장. 아동복지 분야에서의 윤리적인 실천”(Ibid, 181-206), “10장. 노인복지 분야에서의 윤리적인 실천”(Ibid, 247-263)을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적인 특징인 원칙과 과정이라는 구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윤리적 분석의 정향(orientation) 즉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방향에 중점을 둔 유형이라고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원칙과 과정이라는 의사결정의 두 요소 중 상대적으로 원칙에 강조점을 둔 유형으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충돌하는 가치와 원칙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유형으로 루이스(Lewis, 1984)의 모형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상대적으로 두 번째 유형에 비해서 원칙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둔 모형으로 조세프(Joseph, 1985)과 매티슨(Mattison, 2000)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모형은 가치의 우선순위 판단에 사용할 구체적인 지침에 주목하기보다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더 주목한다고 한다. 즉 효과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결정의 단계를 조직적으로 체계화한 연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르웬버그와 돌고프 그리고 리머의 연구로서 이들 모델은 앞의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의 두 가지 특징인 원칙과 절차에 있어서 균형을 위해 상호 유기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모형들이라는 것이다.(김기덕, 2002: 268-269). 김기덕 교수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유형의 분류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여 표를 만들어보았다.

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유형

| 모형 <sup>30)</sup> | 특징 | 강조                       | 연구자   |
|-------------------|----|--------------------------|---|
| 기초적 모형            |    | 윤리적 분석정향(orientation) 강조 | Rhodes(1986)  |
| 결정원칙 모형           |    | (상대적으로) 가치와 원칙 강조        | Lewis(1984)   |
| 결정과정 모형           |    | (상대적으로) 결정과정 강조          | Joseph(1985)<br>Mattison(2000)<br>* Congress(1999)                            |
| 통합적 모형            |    | 의사 결정원칙과 결정과정 강조         | Reamer(1998)<br>Lowenberg & Dolgoff(1996)<br>* 양옥경(1993; 2010)<br>* 이효선(2004) |

자료: 김기덕, 2002: 268-269 내용에 근거한 구성  
\* 는 본 연구자 임의적 추가

30) 이들 유형의 구분은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모형과 세 번째 모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미리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위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윤리학자들의 연구가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요구되는 다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루이스의 연구가 의사결정의 절차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든지, 혹은 조세프와 매티슨이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침과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완전히 도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268)

김기덕 교수는 앞에서 분류한 네 번째 유형[통합적 모형]에 해당하는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 앞선 연구라고 지적하였다. “네 번째 유형에 속하는 연구로서 로웬버그와 돌고프(Lowenberg & Dolgoff, 1996), 그리고 리머(Reamer, 1998)의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앞서 소개한 다른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원칙과 절차와 관련하여 고른 관심과 균형을 보여주고 있고, 나아가 이 두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들 두 연구가 현재까지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김기덕, 2002: 269 강조는 연구자).

그렇다면 로웬버그와 돌고프, 그리고 리머의 연구와 더불어서 한국의 양옥경 교수와 이효선 교수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사실 이효선 교수(2004: 181)는 로웬버그와 돌고프, 리머, 그리고 양옥경 교수의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표로 잘 정리해 두었다. 본 연구자는 이효선 교수가 제시한 표에 이효선 교수가 제시한 자신의 연구 모델의 내용들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표를 재구성해 보았다.

| 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비교   |   |  |  |  |
|---------------------|---|--|--|--|
| 구분                  | 리머  | 로웬버그와 돌고프  | 양옥경  | 이효선  |
| 윤리적 의사결정 토대 (배경)    | 규범윤리학<br>·의무론적윤리학<br>·목적론적윤리학:<br>이기주의·공리주의             | ·윤리적 상대주의<br>·윤리적 절대주의<br>·임상적 실용주의<br>·자아실현<br>·상황윤리<br>·종교윤리<br>·새로운 윤리적<br>·기준과 접근들 | 사회복지기본가치<br>·인간의 존엄성<br>·기회의 균등성<br>·사회적 책임성                 | 윤리이론<br>·공리주의<br>·의무론<br>·권리론<br>사회복지 가치 전체<br>·인간의 존엄성의 존중<br>·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의 존중<br>·기회균등의 원리(평등)<br>·사회통합의 원리 |
| 윤리적 의사결정 고려 사항 (기준) | ·제윤리이론의 원칙, 지침<br>·윤리강령과법률<br>·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원칙<br>·개인적 가치 | ·클라이언트 권리와 복지의 보호<br>·사회적 관심의 보호<br>·최소손실원칙<br>·효율성과 효과성                               | ·사회적 가치와 개입적 가치<br>·효율성과 효과성<br>·클라이언트 이익과 사회의 이익<br>·최소손실원칙 | 1)인간존엄성과 생명의 보호<br>2)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br>3)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br>4)효율성과 효과성<br>5)정의의 원리                         |

다만 이들의 연구가 윤리적 의사결정의 두 가지 요소인 원칙과 과정 가운데 상대적으로 다른 하나를 보다 집중적으로 고찰했다는 것이다.”(김기덕, 2002: 268-269).; 모델을 유형으로 나눌 때 명칭은 고수현 교수에게서 참조하여 가져왔다. 고수현 교수는 루이스(H. Lewis)의 “결정원칙 모델”로, 조세프(M. Joseph)의 “결정과정적 모델”(91-93)로, 그리고 통합적 의사결정모델로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모델(94-97)과 리머의 모델(97-100)을 부르고 있다.(고수현, 2009: 90-100).

|                            |   |   |  |   |
|----------------------------|---|---|--|---|
| <b>윤리적 의사결정 원칙 (우선 순위)</b> | 1.기본재화 우선의 원칙<br>2.개인의 행복추구권<br>3.개인의 자기결정권<br>4.규칙준수<br>5.공익우선의 원칙 | 1.ERS: 윤리강령<br>2.EPS:<br>a) 생명보호<br>b)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br>c)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br>d) 최소손실 원칙<br>e) 삶의 질의 원칙<br>f)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br>g)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 1.생명보호<br>2.자기결정<br>3.비밀보장과 알권리<br>4.균등한 기회제공<br>5. 규칙준수 | 우선 순위의 원리<br>사회복지 가치 전제<br>1.생명보호의 원칙<br>2.자기결정권<br>3.사회정의<br>4.비밀보장과 알권리<br>5.공익우선의 원칙 |
|----------------------------|---|---|--|---|

자료: 이효선, 2004: 181에 연구자가 이효선 내용 추가 구성

## 2 기독교사회복지학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

일반사회복지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에서 제기했던 유산한 의문을 다시 제기해 보자. 과연 사회복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 모델을 통해서 원활하게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 1) 동성애는 상대적 가치의 문제가 아님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복지에서는 동성애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오늘날은 동성애를 사회적 문제라든가 또는 질병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일반 윤리이론과 일반 철학이론을 중심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는 동성애 문제가 일반사회복지의 영역에서는 상대적 가치를 지닌 사회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속에 있는 협회의 윤리강령(Ethical Code)이나 지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국의 사회복지사협회(NASW)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매우 친동성애(pro-gay)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동성애 가족(정상 가족의 형태로 취급한다. 원조가 필요한 이들 가족을 복지대상으로 보는 것에는 합당하지만 동성애 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떠나 정상 가족의 범주로 이해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도 포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커플의 입양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6만5000명의 아이들이 동성애 커플들에게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소아과협회와 정신병리학협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등 많은 사회단체가 동성애 커플의 입양을 후원하고 있다.”[천정원, “매케인, 동성애 커플 입양 반대 발언으로 곤욕” <뉴스스>(2008.07.16); <http://v.media.daum.net/v/20080716165507194?f=o>; 존 매케인과 버락 오바마의 대선 당시 때에도 주요 논쟁의 하나였다].

일반사회복지에서 동성애 문제는 일반적 윤리이론 즉,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윤리이론인 (a) 공리주의, (b) 의무론, (c) 권리론이나, 사회복지 가치 전제들인, (a)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 (b) 자율성과 자기결정론의 존중, (c) 기회균등의 원리(평등), (d) 사회통합의 원리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의 윤리이론들과 가치들의 적용은 동성애 문제를 단지 상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또한 이들에 근거한 정책이나 지침 또한 상대적 가치를 가지는 정책이나 지침에 자니지 않게 된다. 인간의 입맛에 따라 항상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말 것이다. 쿠바의 예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의 동성애에 대한 논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혁명 첫 35년 동안, 레즈비언과 게이들을 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 또는 이상 성격자로 분류되어 공산당이나 학교 등에서 일을 할 수 없었고 이런 경우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졌다. 1992년 쿠바의 지도자인 카스트로(Fidel Castro)는 남성우위(machismo)가 뿌리박힌 동성애 혐오증에 비난하면서 게이들의 권리를 옹호하였고 동성애는 존경받아야 하는 자연적인 경향이라고 하였다. 그 이후로 동성애자들로 보복의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Crooks & Baur, 2010: 200 재인용)고 한다.(물론 이러한 정책으로 동성애자들이 극단적인 동성애 혐오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말이다).

## 2) 사회복지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근본적 한계

일반사회복지학이나 일반인들처럼 동성애 문제를 상대적 가치를 지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면, 『사회복지(실천) 윤리와 철학』에게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에서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모델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기독교사회복지에서의 동성애 문제는 상대적 가치를 지닌 사회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기독교 내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자의 신학적 입장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성적인 범죄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본 연구자를 근본주의자라고 불러도 좋다. 그러나 자주 언급하였지만 오늘날 비판받고 있는 극단적 근본주의자들 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도 또한 인식하였으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동성애 관련 제문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들(Ethical Decision-Making Models)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게 된다. 동성애처럼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와 관계있는 문제들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에 태생적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윤리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사회복지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 3)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삶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본 연구자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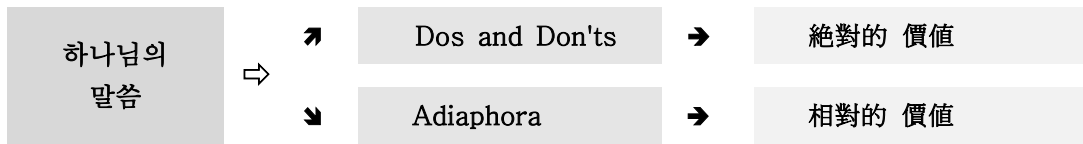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말씀들(Dos and Don'ts에 해당)과 그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아디아포라(Adiaphora)에 속하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들 양자 간의 구별은 연구자의 논의를 위한 상대적인 구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인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케네스 코비(Kenneth Korby)의 아디아포라에 대한 설명에서 아디아포라도 본질적으로 그것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과 버리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디아포라로 불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니고, 금한 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선택과 판단의 몫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아디아포라들은 그것들이 우리의 교리와 삶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들이 보호하려는 것과 버리려는 것은 무엇인지에 그 의미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sup>31)</sup>(Korby, in <http://blog.daum.net/cuesheet/16490368> 인용). 이러한 의미의 연결선상에서 아디아포라에 대해 J. 다우마(J. Douma)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디아포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가? 만약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디아포라를 인간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영역으로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인간은 자신의 전 인생을 (가장 중요한 결정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고백과 양립하기 힘들다(마22:37-40; 고전10:31) 가장 사소한 문제라도 그것은 우리의 전체 생애라는 보다 넓은 상황 안에 속해 있으며,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중립적인’ 영역으로 제외시킬 수 없다. 이점에서 우리는 경건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라면 아는 ‘아디아포라’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들이 내린 결론에 동의한다. ……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적용한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 어떤 특정 영역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아디아포라의 성격을 띠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듯하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는 중립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Douma, 2003: 182, 205)

코비(Kenneth Korby)와 다우마(J. Douma)가 아디아포라의 개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 연구자가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로운 가치판단(성도들에게 어느 정도의 判斷餘地가 부여된)이 성도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아디아포라(adiaphora)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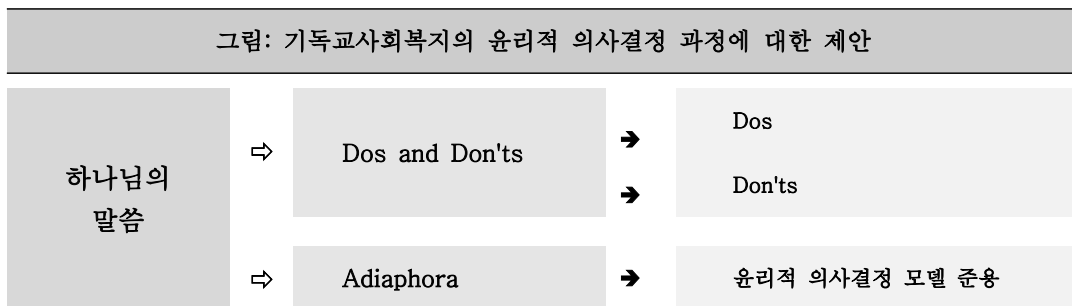
31)<http://blog.daum.net/cuesheet/16490368>에서 재인용; “To call these adiaphora is to say, ‘They are neither commanded nor forbidden by God, and therefore they are subject to human reason, human choice, human judgment.’ However, the import of these various adiaphora lies in what they express of our doctrine and life, and what they protect or cultivate.” Kenneth Korby, “The Pastoral Office and the Priesthood of Believers,” *Lord Jesus Christ, Will You Not Stay?*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5), 369.



#### 4) 기독교사회복지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열개

동성애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정책결정자인 어느 누구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대정신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동성애와 관련 문제들과 같이 기독교의 절대적 가치의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일반사회복지에서 연구되어온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 문제들(사회생활에서나,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딜레마들은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하는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은 일반사회복지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제시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모형을 준용(準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도 일반은총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인 세상을 계단이 집 안쪽으로 연결된 2층으로 된 집과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는 2층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1층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술을 먹고 고래고래 목청껏 고함치면 2층 사람들이 1층 사람을 향해 조용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1층의 거주민들도 2층의 사람들이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면 2층으로 곧장 올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만 할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을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안의 열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1층 사람들과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다툼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툼은 결코 건설적인 논쟁이 될 수 없으면 소모적 결과만이 남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됨,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sup>32)</sup>(Stott, 2011: 16)

또한 비록 비그리스도인 연구자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 집(2층으로 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다만 층만 달리할 뿐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것(본질적인 것)을 다룰 때에는 더욱 더 정확한 성경해석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과거 잘못된 성경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통 기독교 비판자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 연구자들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을 반론에 대한 유익한 반박이 가능할 것이고 그들 반대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IV 나가는 말

### 1 요약

본 연구는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윤리에 대한 소고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을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열개 구상을 위한 기본연구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매우 유용하다. 그렇지만 기독교사회복지 현장에서나 기독교사회복지사 현장에서 만나는 윤리적 딜레마 중,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된 딜레마의 해결에 있어서는 생태적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기독교사회복지에서 절대적 가치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을 사회복지학에서는 상대적 가치를 지닌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임의적이며 편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Dos and Don'ts와 Adiaphora로 구분하여, 절대적 가치를 지닌 Dos and Don'ts에 대해서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이유도 없이 Dos and Don'ts로 취급하여야 할 것을, 그리고 Adiaphora 즉 가치에 있어서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개발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준용(準用)할 것을 제안하였다.

### 2 제안

#### 1) 본 연구와 관련하여

---

32) "in necessariis unitas, in non-necessariis libertas, in utrisque caritas." 존 스토틀(John R. W. Stott)에 의하면 이 문장은 루퍼트 멜데니우스(Rupert Meldenius)가 했던 말로 추측되어지지만, 리처드 박스터(Richard Baxter)에 의해 알려진 격언이라고 한다.(Stott, 2011: 15).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 윤리와 철학』라는 과목과 관련된 것이다. 사회복지에서도 이 과목은 전공선택과목에 불과하다. 1급사회복지사 시험에는 나오지도 않는 과목이다.(물론 사례의 문제로 연계과목-『사회복지실천(기술)론』과 관계하여-의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대학에서도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오래 되었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대학교도 일반대학교와 진배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반대학원에서 배운 과목과 박사과정 때에 배웠던 과목은 차별성이 없었다.(이상하게도 더 웃긴 것은 불교대학교 교수가 기독교대학교에서 가르쳤다는 것뿐이다. 물론 불교대학교[금광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그 교수님 수업도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대학교에서 가르친 평범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었지만 말이다.)

기독교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기독교사회복지에서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중요성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제론』과 관련해서도,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된 사회문제들에 대해서 사회문제론의 대부분이 내용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슈화되고 있는 기독교 본질적 가치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 사회복지와 윤리+철학의 다학문적 성격을 가지는 것처럼, 『기독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은 더 다차원의 다학문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즉 기독교(교리)+윤리(일반윤리+기독교윤리)+철학(일반철학+기독교철학)이라는 다 영역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전공 선생님들 간의 공동연구와 내용에 있어서 기독교세계관에 맞는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회문제론』의 교과내용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 2) 동성애와 관련하여

(1) 우리 안에서의 정직함이 필요하다. 동성애 문제와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비난 중의 하나가 “너희들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해거드(Tad Haggard), 로담(Lonnie Latham), 포크(John Paulk)의 동성애 행각은 공동체에 대해 맹비난을 주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도 이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혼란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동성애에 대한 정직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Crooks & Baur, 2010: 204-205 참조)<sup>33)</sup>

(2) 친동성애 집단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성애가 자연적 현상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유전자 연구, 뇌연구, 동물 연구 등의 연구가 행해지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이다. 특히 동성입양의 문제를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들 동성애자(친동성

33) 김용민@funronga이 2013년10월31일-오전1:29에 올린 트위터 글이다. “충신대학원생들, WCC에 뭐라하기 전에, ‘호화성전 건축’ ( ) ( ) ( ), ‘성추문’ ( ) ( ) ( ), ‘이단결탁 시비’ ( ) ( ) ( ), ‘도우미 노래방 출입 논란’ ( ) ( ) ( ), ‘교회돈 횡령’ ( ) ( ) ( ) 선배부터 문제 삼아야 옳지 않겠나.”(<http://twitter.com/funronga>). 이글의 진위가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이글을 보게 된다면 교회를 향해 “너나 잘하시오”라고 할 것 아닌가!; 문제는 이들 안티기독교나 기독교비평가들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100% 거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난자의 그 작은 진실(그것도 매우 작은 진실)이 기독교의 진리를 침몰시킨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을 것입니다.

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sup>34)</sup>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기독교적 학문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입양의 대한 홍완식 법대교수의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가족에 입양된 아이의 관점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동성가족입양의 문제]는 동성결혼 가정의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입양아의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즉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입양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다(홍완식, 2011: 104).

(3)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의 “높은 이혼율”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다시 한 번 이혼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건강한 성경적 가족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4) 동성가족 입양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입양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너희들(이성애자 커플[가족])이 못하면 우리가(동성애자 커플[가족])”에 더욱 더 강한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입양에 대한 관심의 재고가 필요하다(Lutzer, 2011: 120-121).

(5) 동성애 옹호자들 중에는 성경의 동성애금지에 해당하는 구절을 ‘동성애적 성경해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eg. J. Spong, Jennings Jr의 저서에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슝 프로젝트 위임, 2010)<sup>35)</sup> 사실 동성애자들이나 친동성애 성향을 가진 연구자들 중에는 성경을 제시하면서 동성애에 대해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에 대해 왜 너희들이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친동성애적 성경해석에 대한 방어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에 정확한 천작이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히 ‘알지’(aware)도 못한 채 어떻게 ‘주의’(beware)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Sproul, 2013: 20)고 한 지적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6) 커밍아웃한 가정의 배우자들과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약 60%의 기혼 동성애자들은 최소 1명의 자녀가 있다”(Crooks & Baur, 2010: 209 재인용)고 한다. 이들에게는 많은 혼란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들 자녀들과 배우자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sup>36)</sup>

---

34) “물론 동성애 사회는 두 엄마나 두 아빠가 아이를 길러도 아이에게 부작용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영역에 관한 연구는 동성애자 입양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라.”(Lutzer, 2011: 81-82).

35) 왜 동성애적 성경읽기를 하는 것일까?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다음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 자체가 대법원이다. 따라서 성경 해석의 주된 규칙은 ‘성경은 자기 자신의 해석자다’라는 원칙이다. 이 말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뜻이다. 애매했던 성경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명확해진다. 즉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의 한 본문을 다른 본문과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텍스트는 직접 접해 있는 문맥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Sproul, 2013: 54).

---

36) 최근 기사의 내용<연합뉴스>(2014.04.03)에서 우리는 동성애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에 다니던 유부남 A씨는 종종 화장을 하고 여성복을 입었습니다. 10여년 전 이혼하면서 A씨는 "전 재산을 줄테니 아들을 맡아달라"고 아내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슴이 생기고 성기가 사라지는 등 여성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엄마와 함께 살게 되면서 각자의 삶을 찾은 듯 했지만 A씨가 최근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하면서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2011년 아내와 16살 아들을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혼인 중인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이 여성으로 바뀌면 '여성과 여성'이 결혼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미성년 자녀에게도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이혼했고 아들도 성년이 됐기에 사정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고심 끝에 성별 정정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낳신 남자를 집에 데려와 잠을 잤고 나에게 집은 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며 어릴적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성별이 여성으로 적히면 앞으로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것도 걱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어머니와 전처, 아들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A씨가 불복한다면 항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자료: 성혜미, "성년 자녀 둔 이혼남 성전환 신청 ... 법원 판단은"<연합뉴스>(2014.04.03); <http://v.media.daum.net/v/20140403125503422?f=o>; 강조 연구자).

## 참고문헌

- 강상우 (2012).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 필요성, 근거 그리고 방법” 기독교학문학회. (통권29호); <http://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1620>. 자료참고
- \_\_\_\_\_ (2011). “기독교사회복지 분광(Spectrum): 다양한 분광(스펙트럼)의 존재 이유와 광의의-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의 필요성”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16(3). 7-34.  
<http://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1054>. 자료참고
- \_\_\_\_\_ (2010). “성경해석과 사회복지”. 『신앙과 학문』. 15(2). 7-40.  
<http://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934>. 자료참고
- 고수현 (2009).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개정판. 파주: 양서원.
- 길평원·민성길 (2014).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신앙과 학문』. 19(1). 7-36.  
<http://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1911> 자료참고
- 김기덕 (2004). “한국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분석 한국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분석”. 『비판사회정책』. 17. (2004). 13-46.
- \_\_\_\_\_ (2002). 『사회복지윤리학』. 서울: 나눔의집.
- 김기원 (2001). “기독교사회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長神論壇』. 9. 197-227.
- 김상운 (2008).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서울: 청목출판사.
- 박 경 (2013). “8장. 동성애에 대한 이해와 개입”. 박경·이희숙 외 공저 (2013). 『성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61-285.
- 박종삼 (2005). “기독교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와 디아코니아 신학.”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와 기독교 생명운동』.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 \_\_\_\_\_ (2000).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38-58.
- 숨 프로젝트 엮음 (2010).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파주: 한울.
- 신광현 (2012). “제5장. 군(軍)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에 관한 소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수자 인권』. 서울: ESSAY. 147-177.
- 양옥경 (2010). “제6장.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결정모델”. 양옥경 외.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초판6쇄. 서울: 나눔의 집. 143-166.
- 오혜경 (2005).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서울: 창지사.
- 유 민 (2012). 『결혼과 성, 유전: 만남에서 출산까지』. 서울: 월드사이언스.
- 유장춘 (2002).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사회복지연구』 8. 86-135.
- 이태수 (1999). “한국사회복지의 동향과 종교사회복지의 방향.” 『한국종교사회복지대포럼의회 제2회 심포지엄자료집』.
- 이효선 (2004).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1판2쇄. 서울: 학지사.
- 전혜정 (2004). “한국의 기독교(교회) 사회복지사업의 과거와 현재.” 『호서신학』 11. 232-260.
- 정성욱 (2004).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서울: 청목출판사.
- 조인숙·유정철 (2014). “동성애 보도에 대한 프레이밍 분석: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9(1). 117-151. <http://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1915> 자료참조.
- 홍완식 (2011).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3판.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특히 “3장. 성전환과 법”. 61-105.
- Balswick, Jack O. & Judith K. Balswick (1999). *Authentic Human Sexuality: An integrated Christian approach*. Downers Grove. IVP. 홍병룡 역 (2009). 『진정한 성』. 초판3쇄. IVP.
- Brueggemann, Walter (1982). *Genesis: An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 Canda, Edward R. & Leola Dryud Furman (1999).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박승희 외 역 (2005). 『종교사회복지실천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Congress, E. (1999).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Identifying and resolving professional dilemmas*. 강선경·김옥 역 (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스그마프레스.
- Crooks, Robert & Karla Baur (n.d.). *Our Sexuality*. 10th edn. 김은수 외 역 (2010). 『성과학의 이해』. 서울: 라이프사이언스. “8장. 성 지향성”. 191-214.
- Douma, J. (n.d.) *Responsible Conduct*. 신원하 역 (2003). 『개혁주의 윤리학』. 서울: CLC.
- Fee, Gordon D. & Douglas Stuart (1981).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2nd edn. Zondervan. 오광만 역 (2001).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 Ferguson, Sinclair (1996). *The Holy Spirit*. Leicester: IVP. 김재성 역 (1999). 『성령』. IVP.
- Hedges, Chris (n.d.). *American Fascists*. Creative Management, Inc. 정연복 역 (2012). 『지상의 위험한 천국: 미국을 쪼먹는 기독교 파시즘의 실체』. 서울: 개마고원.
- Keller, Timothy (2013). *Galatians for You*. Surrey, UK: The Good Book Company. 김성웅 역 (2013).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서울: 베가북스.
- Kaori, K. (n.d.) *セックスボランティア*. 육민혜 역 (2005). 『섹스 자원봉사』. 아롬.
- Leowenber, Frank M. & Ralph Dolgoff (1996). *Ethical Decis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5th edn. 서미경·김영란·박미은 역 (2000). 『사회복지실천윤리』. 서울: 양서원.
- Linden, D. J. (2011). *The Compass of Pleasure*. 김한영 역 (2013). 『고삐풀린 뇌』. 작가정신.
- Lutzer, Erwin W. (2010). *The Truth About Same-Sex Marriage*. Chicago, Ill: Moody Publishers. 홍종락 역 (2011). 『동성애에 대해 교회가 입을 열다』. 서울: 두란노.
- McMinn, Lisa Graham (2004). *Sexuality and Holy Longing*. San Francisco: Jossey-Bass. 강선규 역 (2006). 『성, 거룩한 갈망』. 서울: IVP.
- Putnam, Robert D. & David E. Campbell (2010). *American Grace: How religion divides and unites us*. 정태식·안병진·정종현·이충훈 역 (2013). 『아메리칸 그레이스』. 서울: 페이퍼로드.
- Reamer, F. (1999).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고미영·최경원·황숙연·자인협 공역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고양: 사회복지실천연구소.
- Schüklenk, Udo & Tony Riley (1998).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태도”. Udo Schüklenk et als.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김성한 편역 (2010). 『성과 윤리』. 서울: 아카넷. 43-65.
- Sproul, R. C. (1992). *Truths of the Christian Faith*. Wheaton: Ill: Tyndale House Publishers. 윤희경 역 (2013). 『기독교의 핵심진리 102가지』. 2판. 서울: 생명의말씀사.
- Stott, John R. W. (1975). *Balanced Christianity*. 정지영 역 (2011). 『존 스토티의 균형 잡힌 기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 Wallis, Jim (2013). *On God's Side*. 박세혁 역 (2014). 『하나님 편에 서라』. 서울: IVP.
- \_\_\_\_\_ (2005). *God's Politics: Why the Right gets it wrong and the Left doesn't get it*. HarperCollins. 정성목 역 (2008). 『하나님의 정치』. 파주: 청림